韓國의 노력을 霧散시키는 處事는 不公正

제1차 韓·오레곤 방산위원 회의에서
Ronald K. Ragen (아래줄 右에서 두번째)

周知하는 바와 같이 미국은 무역적자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읍니다. 그 원인은 대부분 우리 자신이 만들어 낸 것으로 많은 요인들이 결합되어 있읍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어려울 뿐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결합되어 있으며 대부분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읍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남을 비난하기 쉽고, 무역적자를 개선하는데 우리의 정책이 아니라 남들의 정책을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태평양 연안의 몇 나라 특히 日本, 韓國, 台灣을 비난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 왔읍니다. 결국 이 세나라는 현재 미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적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들 세나라에 대한 미국의 무역관계는 각국별로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이 세나라는 각각 개별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오레곤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한국에 촛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1953년 한국전쟁 終戰이후 한국은 古今을 통하여 가장 위대한 경제, 사회, 정치적 奇蹟중의 하나를 이룩하였읍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태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의 많은 도움으로)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수준까지 성장하였읍니다.

또한 한국은 내부의 근본적인 정치적 변화를 역사상 어떤 국가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치루어 냈읍니다. 한국사회는 이러한 유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세련되고 활기차게 받아들이고 소화하여 민주세계의 진정한 귀감(龜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간의 사실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읍니다.

7년전 한국은 軍府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치되었읍니다. 그후 몇년간 강력한 군부의 영향하에서 독재적인 민주정치가 이어졌읍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간 한국은 두번의 민주적인 선거를 치러냈읍니다. 하나는 대통령선거로서 보수파가 승리하였으며, 또 하나는 국회의원 선거로서 상당히 자유적인 두 정당이 연합하여 국회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게 되었읍니다.

지난 2년간 한국은 처음으로 勞動爭議를 겪었으며, 그중 일부는 상당히 격렬하였읍니다. 그러나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의견 收斂을 통해 최근 한국의 가장 큰 성공작이라 할수 있는 타협에 도달하였읍니다.

한국은 주위에 敵對的인 강대국들이 위치하

이 글은 韓·오레곤 방산협력위원회(KODIC) 위원이며 美 포틀랜드 Ragen, Tramaine, Krieger, Schmeer & Neill社 소속 변호사인 Ronald K. Ragen씨가 論評한 내용으로, 〈Business Journal〉 1988년 6월 13일자에 보도된 것입니다. (편집자 주)

고 있는 관계로 가능한 최대로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 의무를 항상 지녀왔읍니다. 한국은 현재 年間 예산의 3분의 1을 자체방위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도상국에서는 거의 前例가 없는 일입니다.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 美軍은 누구라도 한국군으로부터 강인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동시에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軍의 역할은 민주사회에서 적절한 정도로 까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읍니다.

오랫동안 부지런히 일을 한 결과로 한국은 단지 지난 2년 동안 미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달성하였읍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30년간 흑자를 보았고, 한국은 2년간 흑자를 본 것입니다.

진정 한국이 우리의 무역문제를 야기시킨 것인가?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가?

무엇보다도 근면함에 있읍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공장의 보통 근로자들은 일주일 내내 하루 12시간씩 일을 하고 한달에 하루를 쉽니다. 미국의 직장인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자 하면 우리는 그들을 칭찬하고 잘 되기를 빌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이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근로자들이나 그들 자신에게 불공정한 것이라는 비난을 합니다.

한 국가로서 우리는 그처럼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읍니다. 그렇지만 단지 우리의 생활수준에 이르기를 원하며 일을 하는 다른 나라를 왜 비난하는가?

한국인들은 일을 열심히 할뿐 아니라 저축율도 매우 높습니다. 賃金은 미국의 수준보다는 훨씬 낮지만 급속히 상승하고 있읍니다. 1987년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22%가 인상되었읍니다. 그러면 한국인들은 이렇게 증가된 富를 어느 곳에 쓰는가?

그들은 우리보다 7배정도 저축을 합니다. 이유는 장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현재의 富를 증가시키기 위해, 즉 자립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우리는 말하기를「그렇게 많이 저축을 하면 안된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처럼 소비하라. 우리가 돈을 낭비하고 있는 모든 물품을 원하고 구입하기 시작해야 한다. 더욱 많이 구입하는 것을 배우면 우리에게 수출할 것이 적어지게 된다. 그러면 미국은 한국에서 수입할 것이 적어지고 무역적자는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무역문제에 대한 해결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얼마나 좋겠읍니까?

한국은 以前의 일본처럼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 가를 알아서 그에게 유익한 물건을 생산한다는 마켓팅 개념을 터득하였읍니다. 한국의 지속적인 임금상승으로 많은 한국제품들이 泰國이나 싱가포르등지에서 제조되고 있읍니다. 반면 우리는 거대한 국내시장에 의존하는데 익숙해져 있읍니다. 우리는 국내판매용으로 적합한 것을 제작하고서는 외국인들도 같은 제품을 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동차가 그들의 거리에는 적합하지 않고, 우리의 냉장고는 그들의 소형 주택에는 너무 큰 것이라는 점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외국도 그런 것을 좋아 하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럼에도 외국에서 우리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차별대우이고, 외국의 보호무역주의인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쪽의 마켓팅 잘못인 것입니다.

한국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自國의 산업과 자금에 대해 지나치게 보호적입니다. 더 많은 보호무역주의 관행이 신속히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낡은 제

3세계의 여건과 전쟁으로 황폐해진 경제에서 벗어나려는 국가치고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지 않는 국가가 있읍니까? 확실한 것은 한국에서의 보호무역주의는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욱 성공한 태평양연안의 이웃 나라들보다 훨씬 빠르게 감소되고 있는 점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긴밀한 友邦중 하나니며, 세계의 要衝에서 효과적인 홍보역할을 하고 있읍니다. 한국은 자립을 달성하기 위해 믿을수 없을 정도의 국가적인 결의를 다지고 있읍니다. 한국은 비슷한 여건에 있는 대부분의 우방에 비해 더욱 훌륭하게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의 꾸준한 설득에 힘입어 우리에 대한 무역관계의 중요한 변화를 포함하여 경제, 정치 및 사회구조상의 모든 면에서 큰 변화를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貿易慣行을 개선하기 위해 책임있는 압력을 중단할 이유는 없지만, 한국에 대해 공식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현명한 처사가 아닐 것입니다. 한국 친구들이 이루고 있는 획기적인 跳躍에 대한 미국의 인정이 훨씬 더 적절하고 유익할 것입니다.

미국 특히 오레곤州는 한국과 밀접한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 국민의 강력한 민주우방입니다. 그들의 노력에 감사하고, 그들의 뛰어난 성과에 우리가 기여하였다는 점에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오레곤과 한국은 많은 공통점이 있으며, 한국은 두번째 규모의 交易對象입니다. 오레곤 주민들은 한국과 공정하고, 서로 이해하며, 인내심이 있고, 유익한 관계를 창출하는데 앞장섬으로써 한국, 오레곤과 미국에 도움을 줄수 있으며, 이는 兩國을 위해서도 가장 건설적인 관계가 될 것입니다.*

◦ Ronald K. Ragen은 포틀랜드 Ragen, Tremaine, Krieger, Schmeer & Neill社 소속의 변호사이다. 그는 韓·오레곤 기업 합동법인을 설립하였고, 韓·오레곤 방산협력위원회의 위원으로 있다. 〈Business Journal 1988. 6. 13〉

一笑一少一怒一老

직업상 만날뿐...

아내와 모처럼 外食 약속을 한 어떤 의사가 아내와 함께 고급 식당엘 들어갔다. 테이블로 안내를 받아 가는데 아슬아슬하게 노출한 옷을 입고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던 여자가 의사를 보고는

『이봐요, 오랫동안 못뵈었군요.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말을 건넸다.

이에 당황한 의사가

『고맙소. 그저 그래요』

하고 재빨리 여자를 피해 갔다.

잔뜩 화가난 부인이

『도대체 그 여자 누구죠?』

하고 캐물었다.

『신경쓰지 말아요, 여보. 그저 직업상 만난 여자일 뿐이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부인이 다그쳤다.

『직업상이라니. 당신 직업말이예요. 그 여자 직업말예요!』